

07 학교 생활 기록부

언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치나

학년도가 끝나면 정정이 막힙니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그러니 달력이 이렇습니다	3
03 어떻게 말씀드리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정정이 막히는 시점**과 그 뒤에 필요한 것 — 증빙과 위원회 심의
- ◆ **학기마다 십 분** —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보나
- ◆ **말씀드리는 방식** — 되는 요청과 안 되는 요청을 가른 표
- ◆ 「마음에 안 든다」와 「**사실이 다르다**」의 구분

01 · 먼저 사실부터

학년도가 끝나면 막힙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 학년도 종료일. 규정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언제	고칠 수 있나
학년도 안	비교적 쉽습니다 — 담당 교사가 확인하고 고칩니다
학년도가 끝난 뒤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뒤에도 고치려면	객관적 증빙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규정의 예외 조항은 이렇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대상 결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제2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입니다. 기억이나 주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년이 끝나기 전에 봐야 합니다 — 끝나고 나면 증빙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자료의 정정)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자료의 정정」.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02 · 그러니 달력이 이렇게입니다

학기마다 한 번

시기	무엇을	왜 그때
7월 말	1학기 학생부를 봅니다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2학기 것을 봅니다	학년도가 끝나기 전
1~2월	고칠 것이 있으면 이때가 마지막	종료일이 지나면 막힙니다
그 뒤	증빙과 위원회 심의	어려워집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이 편의 실무입니다. 겨울방학에 한 번 보시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잘 쓰였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이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하셔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볼 것은 둘입니다.

	무엇을	왜
1	비어 있는 칸	누락일 수 있습니다
2	사실과 다른 것	증빙으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2번이 정정의 대상입니다. 날짜가 틀렸다, 과목이 다르다, 안 한 활동이 적혀 있다 — 이런 것은 증빙으로 고칩니다.

반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 정정 절차와 서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3 · 어떻게 말씀드리나

실제 절차

차례	무엇을
1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적습니다 — 칸·날짜·내용
2	증빙을 모읍니다 — 확인서·안내문·사진·기록
3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4	학교가 정정대장에 남기고 절차를 밟습니다

3번의 말씀 드리는 방식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기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쳐 주세요」	「증빙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학교는…」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절차를 밟는 일입니다. 정정대장에 남고 위원회를 거칩니다. 선생님께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학교에 요청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락은 정정과 다릅니다. 안 적힌 것을 적는 것은 학년도 안이면 대개 간단합니다. 그래서 학년도 안에 보시라는 것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 및 별표 1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교마다 서식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학기마다 십 분과 점검표

학기마다 십 분이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1	학생부 II 를 받습니다	—
2	빈 칸을 셉니다	2분
3	아이에게 읽혀 봅니다	5분
4	사실과 다른 자리를 적습니다	3분

3번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른 자리를 가장 잘 찾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시다.

학기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년도 종료 후에는 정정이 어렵다 는 것을 아는가
- ☐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부 II 를 보는가
- ☐ 빈 칸 이 있는가
- ☐ 아이가 읽어 봤는가
- ☐ 사실과 다른 자리 가 있는가
- ☐ 있다면 증빙 이 있는가
- ☐ 겨울방학 에 한 번 보기로 정했는가
- ☐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와 「사실이 다르다」 를 구분 하는가

여덟째가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다른 자리뿐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학생부를 고3에 처음 펼치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1·고2 것이 이미 잠겨 있습니다. 이 편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 한 줄입니다 — 학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십 분이고, 그 십 분이 나중에 못 하는 일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확인과 정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이미 졸업했는데 잘못된 게 있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무겁습니다.

규정은 학년도 종료 후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증빙이 있는지 보십시오. 증빙 없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졸업한 학교에 연락해 절차를 물어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학생부는 준영구 보존이고 졸업 후 8년은 학교가 보관합니다.

다만 대입이 이미 끝났다면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기록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해 볼 만합니다.

Q. 선생님께 확인해 달라고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요?

사실 확인은 선생님께도 필요한 일입니다.

학생부는 감사 대상이고, 잘못 적힌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선생님도 곤란해집니다. 학년도 안에 바로잡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내용 요구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세요」, 「더 길게 써 주세요」 — 이건 규정이 막아둔 자리라 선생님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러니 둘을 갈라서 말씀하십시오. 「사실이 다른 것 같습니다」는 언제든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써 주세요」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분만 지키시면 관계가 상할 일이 없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학년도가 끝나면 정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학기마다 십 분, 사실이 다른 자리만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정 절차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